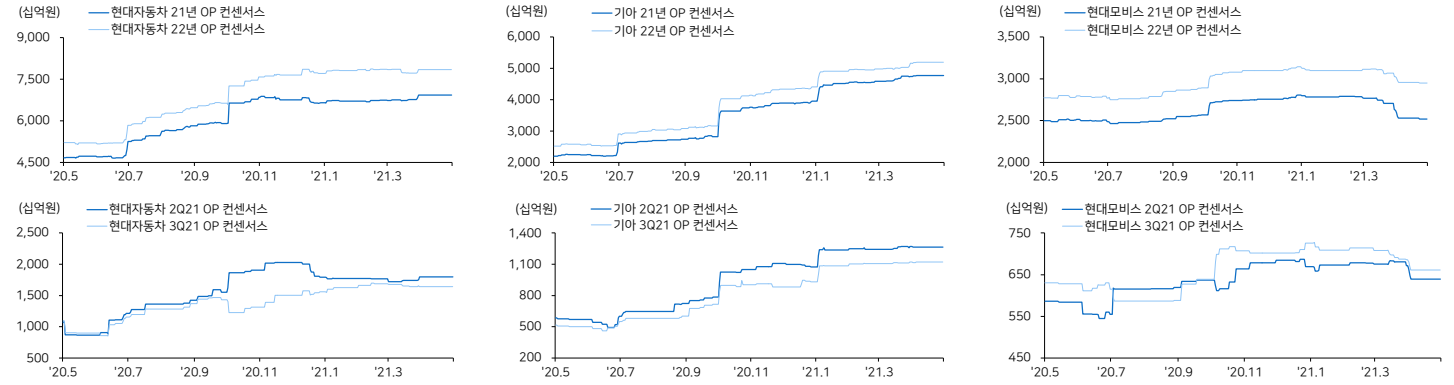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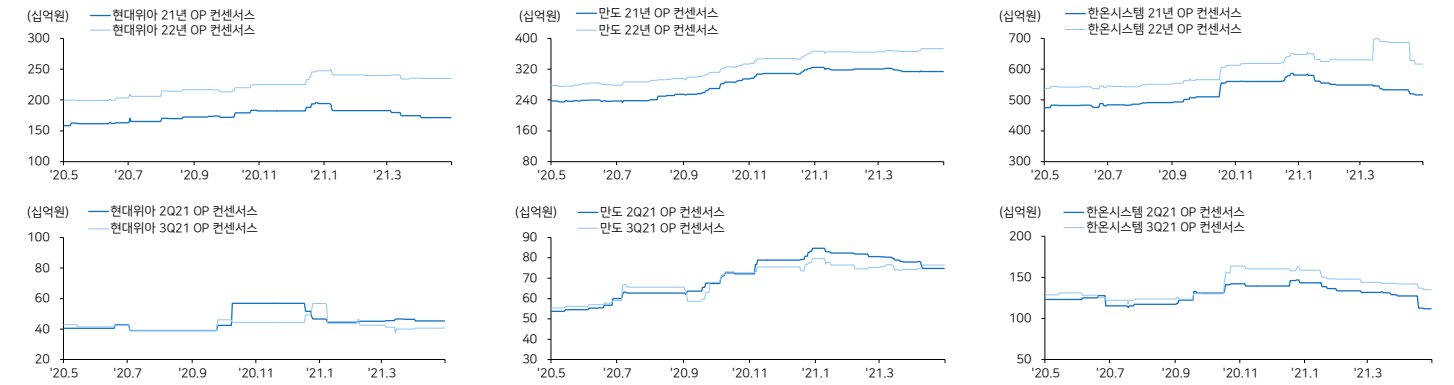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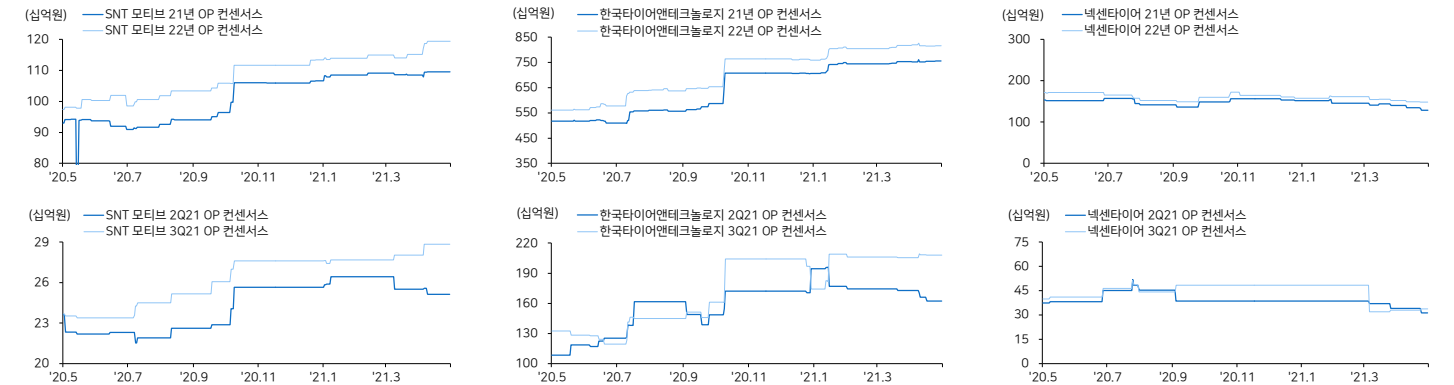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기아, 유럽공장 400만대 생산 '이정표'...양산 15년만 (THE GURU)

기아의 유럽 슬로바키아 공장이 400만대 생산이라는 이정표를 세움. 기아는 향후 전기차 생산 능력을 갖춰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 기지기도 활용할 계획. 국내에서 완성차 형태로 수출하고 있는 친환경차 라인업 생산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https://bit.ly/3g3fbFV>

정의선의 품질경영 '수확'...美 최고 안전등급 휩쓴 제네시스 (한국경제)

26일 업계에 따르면 제네시스 G80는 최근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발표한 충돌 평가에서 최고 안전성 등급을 받음. 이로써 미국에서 판매 중인 G70과 G80, G90, GV80 등 제네시스 전 라인업은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획득한 상태.
<https://bit.ly/2QVPIE5>

'자율주행차 대응여지도' 나온다...샌드박스 심의 통과 (한겨레)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기부가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3차원 정밀지도 등 샌드박스(규제 유예·면제 제도) 신청 3건을 승인함. 모빌리티·블록체인 등 미래산업의 분야 역시 실증특례를 허용받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
<https://bit.ly/3vCuQCg>

반도체법이 전기차·배터리도 낚는다 (서울경제)

정부가 안팎에서는 '반도체 대란'을 계기로 시작된 반도체특별법 제정 노력이 미래 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 중. 대안주당은 이를 배터리·전기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산업지원법'으로 확대 방안을 검토 중.
<https://bit.ly/3hUNiCg>

현대차 아이오닉5 '카 페이' 달고 美 공략...업계 최초 (THE GURU)

현대자동차가 미국 판매 아이오닉5에 '카 페이'(Car Pay)를 탑재함. 현지 전기차 충전소를 비롯해 주차장, 음식점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운전자 편의가 대폭 향상되며 향후 전기차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https://bit.ly/3oT8U0q>

'ITC서 판 뒤집는다' 한국타이어, 美 반덤핑 관세 반발 (THE GURU)

국내 타이어 3사 중 하나인 한국타이어와 일본 스미토타이어가 DOC의 반덤핑 관세 최종 확정지 반발하고 나섬. 오는 6월 28일 열리는 ITC 정문회에서 DOC의 결정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따진다는 방침.
<https://bit.ly/3fqu5GM>

'자동차업계, 기계공학자보다 SW엔지니어 더 뽑았다' (ZDNet Korea)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하면, 링크드인 데이터 분석 결과 비 IT 기업의 개발자 고용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자동차 산업계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기계공학 엔지니어보다 35% 더 많이 고용함. GitHub를 통한 개발자 수 역시 크게 증가함.
<https://bit.ly/2Tg498d>

Ford ups EV investments, targets 40% electric car sales by 2030 (CNBC)

포드는 "Ford+" 계획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전기차 투자를 300억 달러로 늘리며, 올해 말까지 전체 매출의 40%가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함. 또한 '23년 8%의 EBITDA Margin을 달성, 상용차 사업 강화 등의 계획을 발표함.
<https://cnb.co/2QVITV>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 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